

탈식민 문학의 언어 혼종성과 그에 대한 번역전략 논의

김기영
(부산대)

1. 서론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은 한 언어로 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것이다. 원문과 번역문 모두 하나의 단일한 언어, 하나의 단일한 문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의 주된 관심사도 원문과 번역문 사이 어느 지점에서 번역이 실행되느냐는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빈번한 이동과 이주, 자본과 정보의 세계화로 국경의 의미가 축소되면서 두 개 이상의 언어가 혼재하는 다언어적 텍스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학에서 정전의 위치를 차지한 다언어 텍스트의 등장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가 영어, 아일랜드어, 프랑스어 등 약 60여개 언어와 방언을 사용해 집필한 *Finnegans Wake*(피네간의 경야)가 1939년에 출판되었고 1952년에는 나이지리아 작가 아모스 투투올라(Amos Tutuola)의 *Palm Wine Drinkard*(야자열매술꾼)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대부분 구식민지나 디아스포라를 배경으로 여러 문화와 언어가 뒤섞여 이루어진 문학적 산물이다.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문화 교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기 이전까지 타문화, 타언어와의 접촉은 주로 전쟁, 정복, 이주, 여행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9세기,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 해 등으로 진출해 광대한 식민지를 개척했고 열강의 힘에 복속된 지역은 유럽의 문화, 언어와 직접 조우하게 된다.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하는 1950년대까지 종주국과 식민지 사이에는 광범위한 인적, 언어적,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 시기의 교류는 유럽 중심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식민담론¹⁾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독립으로 종주국에 대한 정치적 종속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지속된 식민주의의 잔재는 쉽게 청산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배자들은 물러갔지만 지속적인 억압과 강박이 존재했다(Ashcroft et al. 1989: ii).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이러한 식민담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심리적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 담론이다. 탈식민은 구식민지뿐만 아니라 식민주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식민지배의 영향을 받은 모든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종차별의 부당성 인식, 불평등 해소, 식민 담론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포함된다(박종성 2006: 248). 탈식민담론이 무엇보다 주목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피식민 주민들의 삶에 깊이 내면화된 심리적 종속과 열등감이다²⁾. 1914년 기준으로 지구상의 85%가 식민지, 보호령, 신탁 통치, 연방 등의 형태로 서구열강의 통치를 받았음을 감안할 때 탈식민은 대부분의 세계 시민들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탈식민담론이 가장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구현되고 있는 분야는 문학이다. 탈식민문학(postcolonial literature)은 내면화된 서구의 편견과 피식민인의 피해의식을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이 역시 식민 종식 이후 구식민

1) 식민이란 ‘자국민을 옮겨 심는다’는 의미이며 식민주의(colonialism)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통치하며 자원을 약탈하는 행위, 내지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2) 마르티니크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프란츠 파농(Franz Fanon)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50년대 프랑스 식민주의 담론이 피식민지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연구했다. 대표작 *Peau Noire, Masques Blancs*(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식민주의 담론을 내면화시켜 고통 받았던 피식민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했다.

지역의 문학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담고 있는 텍스트, 서구의 문화와 언어가 누리는 보편적 지위를 전복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모두 포함한다(Boehmer 2005: 3). 우선, 아프리카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아시아 국가들, 카리브 해,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남태평양 섬나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문학과, 그 외에도 식민담론과 인종주의, 백인우월주의, 유럽중심주의에 저항하는 영어 텍스트라면 영어권 탈식민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종주국의 지배는 군사적인 압제와 함께 자신들의 언어를 토착민에게 내면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 식민지들은(백인정착 식민지를 제외하고) 종주국 언어에 새겨진 가치체계가 보편적인 것으로 각인되고 토착 언어는 주변화 되는 억압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탈식민문학 텍스트는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는데, 언어 형식 자체가 식민담론을 전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탈식민 작가들은 구 종주국의 언어(표준어)와 이를 통해 재현되는 서구 중심의 가치체계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조롱하고 뒤흔들고자 한다. 표준 영어를 전복하기 위해 영어권 탈식민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혼종화’와 ‘방언화’이다(Bandia 2011: 264). 예를 들어, 영어 기반 텍스트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등장하는 다양한 토착어 표현들, 토착어 고유명사를 영어로 직역한 어휘들, 의도적 표기 오류 등은 표준 영어의 규범에 복속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영어와 동등한 존재감을 부여하고자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작품 안에 구현된 언어적 혼종성은 영어를 창조적인 방식으로 전용(轉用)해 영어의 특권과 규범, 이로 인해 상징되는 제국주의의 규범을 해체하고자 하는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다(Ashcroft et al.: 45).

영국의 구식민지역인 인도, 아프리카, 카리브해 등을 중심으로 산출된 다언어적 문학작품들은 이제 세계문학에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선사하며 그 지평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³⁾. 하지만 번역자의 입장에서 언어 혼종성을 가진 작품들은

3) 1993년 2월 8일자 타임지 커버 스토리 ‘The Empire Writes Back (by Pico Iyer)’는 영국 식민지 출신 작가들이 종주국 영국의 저명 문학상인 부커상을 휩쓰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기사의 제목은 빌 애쉬크로프트 등(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Helen Tiffin)의 1989년 탈식민 문학 비평서 *The Empire Writes Back*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다.

해결하기 힘든 난제(難題)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현지어, 방언, 그 외 표준 영어의 규범을 혼드는 의도적 표기 오류 등의 혼종적 요소들이 뒤섞여 창출하는 질감을 번역을 통해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언어적 텍스트의 번역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1년에 출판된 번역학핸드북(*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은 혼종적 텍스트의 번역에 대해 번역학은 “해답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Simon 2011: 19 in *Handbook*). 주요 선행연구들이 공통되는 입장 또한 다언어적, 언어 혼종적 텍스트 번역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들은 한 목소리로 ‘자국화 이국화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창조적 번역’을 시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상빈 2014; 손석주 & 이명이 2015; Delabastita 1993; 2002).

모든 번역은 일종의 ‘문화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에서 보는 문화번역이 여러 문화가 만나 혼종성을 창출하는 공간이듯이(Bhabha 1994: 472), 번역은 원문과 번역문, 원문의 문화와 번역문의 문화가 만나 조화롭게 공존 소통하는 방식이다(Snell-Hornby 2000: 13). 그러나 문화번역은 번역자에게 힘든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텍스트 자체가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번역한 문화번역이라면 이것은 다시 어떤 식으로 번역될 수 있을까. 문화번역을 통해 구축된 텍스트의 혼질성과 긴장감이 어떻게 번역을 통과해 살아남을 것인가. 본 연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탈식민문학의 배경과 특성을 언어 혼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권 탈식민 문학작품들의 사례를 통해 번역의 현실과 어려움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전술했듯 다언어적 텍스트가 가진 혼종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모든 번역자들에게 넘기 힘든 벽이 아닐 수 없다. 사용된 번역전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번역자들의 고심과 한계, 이와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번역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 자국화와 이국화, 등가와 변이를 넘어서는 창조적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할 기회를 기대한다.

2. 탈식민문학의 특징

2.1 탈식민주의와 탈식민문학

‘탈식민’은 원래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국가들을 지칭했고 1970년대 말부터 문학 비평과 문화 이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이석구 2011: 26). ‘탈식민’은 ‘포스트콜로니얼(postcolonial)’을 번역한 용어다. 포스트콜로니얼은 ‘식민후기’, ‘후기식민’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탈식민’이 사용이 적합한 경우가 많다. ‘탈(post)’이란 접두어가 ‘~이후의(coming after)’와 ‘~를 넘어서는(going beyond)’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어 식민주의의 극복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함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 식민국가들이 ‘탈식민 된 것’이 아니라 ‘탈식민 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가 많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더글라스 로빈슨(Douglas Robinson)은 탈식민 연구의 영역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Robinson 1997, 정혜욱 2002: 27). 그의 연구는 구식민지와 직접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역할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 1) 독립 이후 구 식민지 연구
- 2) 식민주의 시작 이후의 식민지 연구
- 3) 정복자 문화와 피정복자 문화의 관계 연구, 즉 권력관계 연구

롱허스트(Longhurst 2008:143)가 분류한 탈식민 연구 영역도 이와 유사하다. 구 식민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식민담론 전복에 관계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 1) 제국의 문화
- 2) 제국에 저항하는 문화
- 3) 탈식민된 국가들의 문화
- 4) 제1세계 메트로폴리탄 문화와 제3세계 문화 사이의 관계

제국의 주요 통치 전략중 하나는 토착 언어에 대한 억압이었다. 열강은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본국 언어를 표준화하고 토착어를 주변화해 나갔다. 영국은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영문학 작품들을 교육과정에 대거 편입함으

로써 표준 영어와 영어를 통해 전달되는 문명과 인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각인 시키고자 했다. 영문학 교육이 “원주민들을 통제하고 종주국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 것이다(Viswanathan 1987: 17). 피식민 주민들은 이를 통해 언어와 문명의 규범을 영문학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토착어와 토착 문화를 주변적이고 비규범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식민담론에 젖어들게 된다. 탈식민문학은 이에 저항해 다양한 방식으로 종주국 언어와 문학을 통해 각인된 세계의 보편성에 질문을 제기하고 서구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환상을 뒤흔들고자 한다.

2.2 오리엔탈리즘과 흉내 내기

식민담론의 논리적 기반은 서구 우월주의적 이분법이다. 서구와 비서구를 백인과 유색인, 문명과 야만, 이성과 감정, 자아와 타자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양에 대한 서구의 편향된 시각은 “오리엔탈리즘”⁴⁾이라는 개념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것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1989년 출판한 저서이기도 하다. 사이드가 비판한 오리엔탈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Longhurst 2008: 122).

1. 동양, 서양을 이분법화한다.
2.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본질화한다.
3. 서양을 우위에, 동양을 열등한 것으로 놓고 위계질서화 한다.

탈식민주의 이론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호미 바바(Homi Bhabha)는 “흉내 내기”를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주목했다. 바바에 의하면 흉내 내기는 먼저 식민주체에 대한 조롱이 된다. 정복자들을 과장되게 모방하여 그들의 권력이 허구적이고 인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정형철 2009:

4) 사이드의 저서 *Orientalism*은 서구 사회 내에서 탈식민 담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드는 이 책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을 재현한 방식을 분석하고 동양을 자신들의 기호와 편익에 따라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을 인식론적 폭력으로 규정해 식민담론 극복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44-5). 흉내 내기는 또한 혼종성을 유발한다. 유사성을 추구하지만 똑같이 닮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차이들 때문이다. 유사성과 차이, 이것은 흉내 내기가 가진 양가성이다. 바바는 자신의 논문 ‘Of Mimicry and Man’에서 양가성이 식민 지배자의 권위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논하고 있다(1997: 153). 이런 식으로 혼종성은 식민주체에게는 불안의 원천이 되고 피식민인에게는 저항의 터전으로 활용된다(Bhabha 1994: 236). 혼종성은 인종적, 문화적 순수성이라는 본질주의적 원칙에 도전하며, 그러한 순수성, 본래성과 같은 관념들을 초월할 수 있는 사유 양식을 제공한다. 때문에 혼종성은 ‘개인과 세계의 확대되는 접촉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화로운 극복과 공존의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편견과 장벽을 넘고 불균등한 세계에 대항하기 위해 싸우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위반, 오류, 유머, 낯선 것들의 뒤섞임(mixing, mix-up)을 통해 완결성, 우월성의 환상에 도전하는 전략이다. 혼종성은 여러 인종과 언어, 문화들이 위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름’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탈식민주의의 이론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강제한다. 반인종주의적 문학으로 인종주의를 공격하고 교정하고자 시도하기보다 문화적 혼종성으로 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자 꾀하는 것이다(Walkowitz 2006:133; Brennan 1997: 306).

2.3 탈식민 문학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혼종성

흉내 내기가 가진 양가성은 언어 사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피식민인의 종주국 언어 사용이 종주국의 재현시스템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인도인의 영어 사용은 원어민을 흉내 내며 유사성을 추구하지만 ‘차이(혼종성)’를 생산해 표준 영어 체계에 도전한다. 표준 영어와 식민지 영어의 간극은 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류와 방언이 유발하는 주변성에 해당하지만 현지인에게는 정체성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틈새 역할을 하게 된다(Ashcroft et al. 1989: 39). 인도, 나이지리아, 남아공을 비롯한 영어 사용 식민지 출신 작가들은 이러한 틈새 속에서 “영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유”하며, 이를 통해 “언어에 새겨진 식민주의 담론에 도전하고, 토착문화의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영어를 낯선 위치로 이동”(ibid.: 8)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권 탈식민주의 텍스트의 언어 사용은 경우에 따라 흉내 내기를 넘어서

개조에 가까운 파격을 보이기도 한다. 종주국의 언어를 장악해 구식민지 상황에 깊숙이 적응시키면서 그 언어를 변화시키는 경우이다(Ashcroft et al. 1989: 38). 애쉬크로프트 등은 탈식민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ibid.:59-76).

- 1) 주석달기, 괄호치기
- 2) 번역되지 않은 토착어 삽입
- 3) 간언어
- 4) 구문구조 융합
- 5) 코드 스위칭, 변종영어 음차

먼저, 영어 텍스트에 삽입된 토착어나 외국어 어휘에 주석을 달거나 괄호를 쳐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종주국과 식민지의 언어적, 문화적 거리를 드러낼 수 있다. 두 번째, 토착어를 아무런 설명이나 번역 없이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정치성을 띠는 행위로 간주되는데, 문화적 차별성을 나타내면서도 토착어를 영어와 동등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작가의 입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셋째, 간언어는 두 언어의 언어적 구조가 융합된 것으로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언어체계로 알려져 있다⁵⁾. 간언어 사용의 대표적 작품은 나이지리아 작가 아모스 투투올라(Amos Tutuola)의 *Palm Wine Drinkard*이다. 일부 비평가들, 특히 아프리카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부정확한 언어로 아프리카 구어 전통을 흉내 내는데 그친다고 폄하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성을 잘 살린 독립적이고 진정성 있는 글쓰기로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다(ibid. 66). 다음으로, 토착어의 어휘와 영어의 구문구조가 융합되는 경우인데, 피진어와 이것이 발전된 크리올어를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코드스위칭은 텍스트 내에서 표준 영어와 지역 방언이 수시로 교차되는 서술 방식이다. 나레이터는 표준 영어로 서술해 나가지만 인물들의 대화는 방언(변종 영어, 피진, 크리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다.

위 분류는 다양한 언어와 방언, 피진어들이 사용되는 카리브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표기 오류’, 여러 단어들의 조합을 통한

5) William Nemsler(1971), Larry Selinker(1972)

‘신조어’, ‘대문자화’ 등도 탈식민 작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탈식민 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의 체계를 전복하고 개조함으로써 토착화된 영어 변종, 즉 “english”⁶⁾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표준 영어 안에 내재된 식민담론에 비판과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McLeod 2000: 29).

3. 사례 고찰

이 장에서는 위에 제시된 다양한 혼종화 전략 중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원문 텍스트에 ‘설명 없이 삽입된 외국어나 토착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창안된 ‘신조어’, 표준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고어, 사어’ 등이 어떤 방식으로 번역되고 보상되는지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별한 작품들은 *The Satanic Verse*와 *The God of Small Things*, *Things Fall Apart*, *Ulysses*, *Finnegans Wake* 등이다. 다섯 작품 모두 탈식민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며, 다언어적 혼종성으로 잘 알려진 텍스트들이다. 번역 사례를 보기 위해 각각의 한국어 번역본인 『악마의 시』, 『작은 것들의 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율리시스』, 『피네간의 경야』 등을 참조했다.

3.1 작품 소개

The God of Small Things(The God)

작가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는 인도 케랄라주 출생이다. 1997년 발표한 첫 장편 *The God of Small Things*가 제 29회 부커상을 수상하고 40개 언어로 번역되면서 명성을 얻었다. 한국어본은 『작은 것들의 신』⁷⁾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인도의 독립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는 식민주의의 잔재와 식민주의를 깊이 내면화한 인도인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인

6) 표준 영어(Receiver English, Standard English, English)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식민지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양식의 다양한 영어(Ashcroft et al. 1989: viii)

7) 황보석 역 1998/2010년 문이당, 박찬원 역 2016년 문학동네

도인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식민주의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카스트제도, 자본 지구화로 유발되는 병폐들임도 철저하게 인식한다. 영어를 기반으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친족 호칭, 신분, 명사, 노래 등을 표기하기 위해 말라얄람어⁸⁾가 자주 등장하는데, Kochamma(고모, 이모, 숙모), Pappachi(할아버지), Mammachi(할머니), Mon(남자 아이), Mol(여자 아이) 등이다. 그 외 힌디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어휘들, 표기 오류 등을 통해 다층적이고 혼종적인 질감이 구현된다.

The Satanic Verse(Satanic)

1981년 부커상 수상작인 *The Satanic Verse*는 인도 출신 영국인 작가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의 소설로 우리나라에는 『악마의 시』⁹⁾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이슬람교 모독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종교는 모티브가 될 뿐 식민지의 경험과 영국과 인도를 오가는 이주민의 삶이 주제이다. 두 주인공은 인도의 인기배우 지브릴 파리슈타와 영국에서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살라딘 참차인데, 이들이 탄 영국행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슬람교였던 루시디 가족은 인도-파키스탄 분리 이후 종교적인 이유로 파키스탄으로 강제이주를 경험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영국 유학시절에 겪은 인종적 억압과 더불어 국가나 체제가 가지는 부조리함을 체험했을 것이다. *The Satanic Verse*에 삽입된 토착어나 외국어들은 힌디어, 우르두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호칭, 의성어, 의태어, 종교, 문화 관련 용어들이 대부분이다. 띄어쓰기 무시, 철자 오류, 어휘의 조합, 잘못된 발음 등이 뒤섞여 표준 영어를 비틀고 조롱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8) 인도의 공용어는 영어와 힌디어지만 지역에 따라 벵골어, 타밀어, 우르두어, 텔루구어 등 17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작가의 고향인 케랄라 주에서 사용되는 말라얄람어는 인도 인구의 3% 정도가 사용한다.

9) 김진준 역 2001년 문학세계사

Things Fall Apart(Things)

탈식민을 지향하는 문학이 식민 종주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는 아프리카 작가들의 영어 사용에 관해 케냐의 응구기 와 시옹오(Ngugi wa Thiong'o)와 대립되는 입장을 보인다. 응구기는 *A Grain of Wheat* 저작 이후인 1978년부터 영어를 버리고 토착어인 키쿠유어로만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에 따르면 “언어는 한 민족이 역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의 집단적 기억 저장소”(wa Thiong'o 1994: 14-15)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체베는 “아프리카인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용된 새로운 영어를 만들어내야 한다”(Ogbaa 1999: 193)고 강조하며 영어를 아프리카 식으로 확장해 사용하고자 한다. 아체베의 입장은 ‘모방과 변형에서 오는 차이로 혼종성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식민담론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호미 바바의 “흉내 내기”와 상통한다. 아체베의 *Things Fall Apart*는 아프리카 영어 소설의 명작으로 꼽히며 5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¹⁰⁾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작품의 배경은 열강의 침략과 기독교 유입으로 전통사회가 붕괴되어가는 19세기 이보(Ibo)족 마을로 작품을 통해 아프리카의 풍광, 섬세한 정서, 오랜 문화적 정체성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표준 영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휘 배열, 이보어 어휘와 구절, 노래 등이 설명 없이 등장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일 뒤에 간단한 이보어 용어집이 첨부되어 있다. 아체베는 이보족 사회와 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들을 번역하기 보다는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독자들이 낯선 문화를 접하고 이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길 원한다(조규형, 작품해설 중). 한국어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에서도 거의 모든 이보어 어휘들이 의미 설명 없이 음차되었다. 대신 원작과 마찬가지로 제일 뒷부분에 이보어 어휘목록이 제공된다.

Ulysses

제임스 조이스는 대학 졸업 후의 일생을 고국 아일랜드를 떠나 살았지만

10) 임정빈 역 1994년 동쪽나라, 조규형 역 2008년 민음사

작품의 소재는 언제나 ‘영국 식민 지배하의 아일랜드’였다. 그의 문학을 ‘인간의 보편성’이나 ‘의식의 흐름’이라는 측면을 바라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작품의 정치적, 현실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정성희 2003; 최석무 2003). 거의 모든 작품의 무대가 ‘영국 식민 통치 하의 아일랜드’일 뿐만 아니라, 표준 영어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외국어, 고어, 합성어, 신조어, 다양한 문체와 언어유희의 등장은 언어적 혼종성이라는 탈식민문학의 특징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Ulysses*는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이 하루 동안 더블린 거리를 배회하는 여정을 따라 일어나는 사건과 의식의 흐름을 그린 작품이다. 아일랜드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등의 외국어와 고어, 차용어, 표준 영어와 의미장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 대거 등장한다(Tymoczko 1994: 229-30). 번역본 『율리시즈』¹¹⁾에서는 외국어 대부분이 음차 후 해설, 각주 등을 첨가하는 식으로 처리되었다. 워낙 방대한 작품이라 전체 18개 장들 중 제 16장 ‘Eumaeus(역마차 오두막)’의 일부만 살펴보았다. 이 장은 다양한 외래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으로 두 주인공 블룸과 스테판이 늦은 밤 역마차 오두막까지 가서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묘사하는데, 심신의 피로와 심야의 시간을 암시하는 산만하고 수다스러운 문체가 주를 이룬다(김종건 1995: 329).

Finnegans Wake(Finnegans)

*Finnegans Wake*는 더블린의 주막 주인 험프리 이어워커의 하룻밤 꿈을 기록한 이야기다. 제목 ‘Finnegans Wake’¹²⁾는 아일랜드 민요 ‘Finnegan’s Wake’에서 가져온 것이다. 팀 피네간이라는 벽돌공이 술을 마시고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를 추모하는 경야제가 열리지만 한 손님이 실수로 시신 위에 위스키를 흘린 후 피네간이 깨어나게 된다. 이 민요는 그의 소생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Finnegans Wake*는 번역하기가 더욱 난해하다. 영어를 기반으로 60여 가지 언어로 이루어진 다층적이고 혼질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번역 불가능성

11) 김종건 역 1968/1988/2007년 범우사

12) Finnegan’s를 복수형 Finnegans로 바꾸어 팀 피네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네간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의 사례로 자주 거론되어 왔다. 우리에게 『피네간의 경야』¹³⁾로 알려져 있다.

3.2 번역 사례 고찰

3.2.1 번역되지 않은 토착어, 외국어

음차역

토착어와 외국어 어휘들을 번역하지 않고 영어 텍스트에 삽입하는 전략이다. “텍스트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가 바로 타자의 언어임을 명백히 함으로 인해”(Ashcroft et al. 1989: 63) 문화적 거리감을 가시화할 수 있다. 우리 말로 번역될 때는 보통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 설명 없이 음차하거나, 음차 후 괄호를 이용해 의미를 첨가하는 방식, 각주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괄호 안에 의미를 설명한 후 다시 각주를 덧붙여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음차 번역되는 경우 처음에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맥락을 통해 차츰 뜻을 알게 된다.

Chacko was Mammachi's only son (*The God*, 말라얄람).

→ 차코는 마마치의 외아들이었다.

“Estha Mon!” he would call out, in his high, piping voice, (*The God*, 말라얄람)

→ “에스타 몬!” 그는 껍질을 벗긴 사탕수수처럼 나달나달하고 까슬까슬하면서 높고 새된 목소리로 외쳤다.

Sometimes another village would ask Unoka's band and their dancing egwugwu to come and stay with them and teach them their tunes. (*Things*, 이보)

→ 가끔은 다른 마을에서 우노카의 악사들과 춤추는 에구구를 초청하여 그들의 음악을 배웠다.

13) 김종진 역 1985 범우사/2012 고려대학교출판부

‘namaqool’은 ‘얼간이 멍청이’라는 뜻으로 설명이 필요한데도 괄호안에 각 주 없이 영어표기가 들어있다. 맥락을 통해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namaqool(*Satanic*, 힌디)
→ 나마쿨(namaqool)

원문에 없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번역해 의미를 명확히 해준 사례도 있다.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긴장감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He could hear in his mind's ear the blood-stirring and intricate rhythms of the ekwe and the udu and the ogne. (*Things*, 이보)
→ 나무 북 에크웨, 도자기 북 우두, 징 오게네가 내는 따뜻하고 아련한 리듬과 함께 자신의 피리 소리가 화려하고도 애달픈 선율로 어우러졌다.

음차한 후 바로 이어지는 괄호를 통해 의미가 보완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the elder man recounted to his companion à propos of the incident his own truly miraculous escape of some little while back. (*Ulysses*, 불)
→ 바로 그때 더블린 연합 전철회사 살사차(撒砂車) 한 대가 우연히도 되 돌아오는지라 그리하여 연장자(年長者)는 얼마 전에 그 자신이 정말이지 기적적으로 모면한 사건에 ‘아 프로뵘(관하여)’ 그의 동료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Baba(*Satanic*, 힌디)
→ 바바(Baba: 원래는 귀족이나 힌두교 성자에게 붙이는 경칭이지만 ‘여 보게’ 따위의 호칭으로도 사용됨*)

demimonde(*Ulysses*, 불)
→ ‘드미몽드(화류계)’

confrères(*Ulysses*, 불)
→ ‘콩프레르(술친구)’

간단한 설명은 괄호로 가능하지만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 각주도 함께 활용된다. 상호텍스트성을 가지거나 문화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차 후 괄호로 의미를 설명하고 다시 각주에서 자세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Her face was pale and as wrinkled as a dhobi's thumb from being in water for too long. (*The God*, 힌디)

→ 얼굴은 창백했고 물속에 너무 오래 담근 도비의 엄지손가락처럼 쭈글쭈글했다.

각주) 인도와 파키스탄 카스트 계급의 하나로, 주로 세탁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Koo-koo kokum theevandi

Kooki paasum theevandi

Rapakal odum theevandi

Thalanngu nikum theevandi (*The God*, 말라얄람)

→ 쿠-쿠쿠 콤 티반디

쿠키 파둠 티반디

라파칼 오둠 티반디

탈란누 닐콤 티반디*

각주) 쿠-쿠-기차가 온다/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온다/낮에도 밤에도 부지런히 달린다/달리다 지쳐서 기차가 멈춘다.

... he recognized in the sentry a quandom friend of his father's Gumley. (*Ulysses*, 게일)

→ 그의 부친의 ‘퀸담(옛)’ 친구였던 겍리라는 것을 생각해 내기에는

각주: Gumley 더블린의 몰락한 중류 가문의 자식

- Putana madonna, che ci dia i quattrini! Ho ragione? Culo rotto!

- Intendiamoci. Mezzo sovrano più . . .

- Dice liu, pero.

- Farobutto! Mortacci sui! (*Ulysses*, 이탈리아) →

-- ‘푸탄나 마돈나, 케 치 디아 이 쿠라트리니! 호 라지어네? 쿨로 롯토! (마돈나의 매춘부 같으니, 녀석은 우리한테 돈을 쥐야 해! 그렇잖아? 썩은 똥구멍 녀석!)’

- ‘인텐디아모치, 메조 소브라노 피우. . . (그렇고 말고 반 파운드를 더 . . .)’
 - ‘디체 루이, 페로!(그가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나!’
 - ‘메조(반이라)’
 - ‘파라붓토! 모르타치 수이!(악한 같으니! 뉘지라지!’
- 각주: (이탈리아어) 이 두 거리의 이탈리아 건달들은 자신들의 고용주 또는 제삼자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욕설을 퍼부음

의미역

아무런 장치 없이 의미역 된 사례도 많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원문이 가지고 있는 낯설고 생경한 느낌이 삭제된다.

The Black Sahib. The Englishman who had “gone native”. (*The God*, 아랍, 힌디)
→ ‘검은 나린’, ‘원주민이 된 영국인’.

kohl (*The God*, 아랍)
→ 화장술

ayah(*Satanic*, 힌디)
→ 보모

의미역 한 후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afreets, djinns (*Satanic*, 아랍)
→ 마귀(afreet)와 정령(djinn)

3.2.2 고어, 사어

다음은 별다른 전략 없이 의미역 된 경우이다. 원문이 가진 고풍스럽거나 예스러운 느낌이 전혀 살지 못한다.

blandiloquence (*Ulysses*, 영 사어)

→ 덩덤한 호언장담

zamindar (*The God*, 페르시아)

→대지주

아래 사례는 의미역하면서 문장의 다른 위치에서 ‘~었는지라’, ‘그런고로’와 같은 우리말 고어 표현을 사용해 의미역으로 손실된 부분을 보상하고 있다.

the former having previously whispered to the latter a few hints anent the keeper or it, (*Ulysses*, 게일)

→ 오두막 주인에 관하여 미리 두서너 가지 주의를 후자에게 귀뜸해 두었는지라. 1057

he put it down to sheer cussedness or jealousy, pure and simple. (*Ulysses*, 영 고어)

→ 그런 고로, 절대적인 고집이나 순수하고 단순한 질투로써 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한 . . .

다음은 음차한 후 괄호에 의미 설명이 덧붙여지거나 각주가 첨가되는 사례이다.

while the other, who was acting as his fidus Achates, inhaled with internal satisfaction the smell of James Rourke's city bakery . . .

(*Ulysses*, 라틴)

→ 한편 그의 ‘피두스 아샤테스(충실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상대방은 . . . 제임스 로크의 시영 빵 공장의 냄새를 마음으로부터 만족감을 가지고 호흡했던 것이다.

The hoi polloi of jarvies or stevedores, or whatever they were, after a cursory examination (*Ulysses*, 그리스)

→ 마부들 또는 부두 일꾼들 또는 그 밖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든 ‘호이 폴로이(하급 백성)’들은 재빨리 두 사람을 한 번 살펴본 연후에,

However, haud ignarus malorum miseris succurrere disco, etcetera, as the Latin poet remarks, (*Ulysses*, 라틴)

→ 하지만 바로 그 라틴 시인(詩人)이 ‘하우드 이그나루스 말로룸 미제리스 수꾸레레 디스코 에뜨체테라(고난을 못 본 체 하지 않고 고난 당한 자를 구원할 줄 아노라)’를 말하고 있듯

각주: *haud ignarus malorum miseris succurrere disco, etcetera*(라틴어)베르길리우스의 대서사시 『아에네이스(*Aeneis*)』(아에네아스의 유랑을 읊음)에서 디도(Dido)가 아에네아스에게 그를 위안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말(1: 630)

*Ulysses*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게일어, 영어 고어와 사어들이 뒤섞여 있다. 상투적이고 불가사의하며 감정을 악화시키듯 완곡어법, 상투어, 허풍 및 과장된 섬세성으로 넘치는 19세기 소설의 패로디적 변안을 상기시킨다(김종건 1995: 336). 번역자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어의 진부한 표현을 고의로 사용하고, 길고 느슨한 문장, 구두점을 원서와 같은 수로 유지”했다고 밝히고 있다(김종건, 옮긴이의 글). 번역본에서는 의미역을 하거나 음차 후 의미를 설명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우리말의 예스러운 표현들을 도처에 사용해 원작의 혼종성을 보상하고자 했다.

3.2.3 합성어, 신조어

먼저 *The Satanic Verse*에서 등장하는 영어와 외국어가 합성된 신조어와 그 번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oadji(*Satanic*, 영+힌디)
→ 알랑쇠님

kaput(*Satanic*, 힌디+ 독)
→ 우뚝 멈추다

영어 ‘toad’는 ‘두꺼비, 기분 나쁜 사람’의 의미이고 ‘ji’는 힌디어로 ‘~님’이라는 뜻의 존칭접미사이다. kaput은 힌디어 외성어 ‘멈추는 소리 phutt’와 독일

어 ‘kaputt 기진한, 녹초가 된’ 이 합성된 단어이다(Paul Briens, *The Satanic Verse* 주해). 두 경우 모두 단순한 의미역에 그쳐 원문의 혼종성과 신선함, 청각적 효과가 전달되지 않는다.

*Finnegans Wake*는 영어 기반에 60여 가지 언어로 이루어진 다층적이고 혼란적인 텍스트로 번역 불가능성의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제목을 예로 들면 Finnegan은 Finn(전설의 거인, 게일)과 fin(끝, 불), finis(끝, 라틴), again(다시, 영)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이 작품의 번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원문 어휘에 대한 분석적 이해이다. 이는 “경야어를 해체함으로써 그것이 담고 있는 언어의 무수한 동소체(同素體)(isomorphism)를 발견”(김종건 2001: 230)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휘 분석은 우리말, 한자어, 고어 등을 활용한 번역어 창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를 활용해 만들어진 번역어의 사례를 보면, “languishing”의 경우 ‘languish’, ‘language’, ‘anguish’의 조합으로 분석되어 ‘무감고뇌어(無感苦惱語)’라는 신조어로 번역되었다. 또 ‘cropse’는 ‘corpse(시체)’, ‘crop(곡물)’의 융합으로 보아 시곡체(屍穀體)라는 절묘한 표현이 생겨났다(김종건 2015: 869). 원문의 얽히고설킨 난해한 의미층들을 우리말과 한자어의 다층적이고 생경한 신조어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등가 구현의 차원을 넘어서 번역자의 연구와 고민, 창조적 사고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번역으로 여겨진다.

Finnegans Wake 중 한 문장과 그 번역사례를 살펴보겠다.

What clashes here of wills gen wonts, oystrygods gaggin fishygod!
Brékkkek Kékkek Kékkek Kékkek Kóax Kóax Kóax! Ualu Ualu Ualu!
Quáuauh! Where the Baddellaries partrisans are still out to mathmaster
Malachus Micranes and the Verdon's catapulting the camibalistics out of
the Whoyteboyce of Hoodie Head. (ST)

→ 여기야말로 의지자意志者와 비의지자非意志者, 석화신石花(굴)新對어신魚新의 무슨 내 뜻 네 뜻 격들의 현장이람! 브렉케크 개골 개골 개골! 코옥쓰 코옥쓰 코옥쓰! 아이 아이 아이! 아이고고! 그곳에는 켈트족의 창칼 든 도당들이 여전히 그들의 가정과 사원들을 절멸하고 흑족或族들은 투석기와 원시의 무기로 머리의 두건 쓴 백의대白衣隊로부터 사람 잡는 뒤집힌 본능을 드러내고 있었도다. (TT)

원문과 번역문 모두 이해가 쉽지 않다. 『피네간의 경야 주해』를 참고하면 위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¹⁴⁾.

“우리는 거인(피네간)의 위로 솟은 발가락 주변에, 오스트로고스(동고트족)가 비지고스(서고트족)와 싸웠을 때, 그들은 로마 제국의 황혼기의 그것과 비유되고, 굴이 물고기와 싸우는 대홍수의 혼돈과 비유되며, 아리스토파네스 풍의 개구리가 어둠 속에서 합창하는 하계의 무질서로 각각 비유되는, 소요가 창궐함을 일컫는다.”(37)

한국어 번역문은 원문의 다층적인 신조어들을 옮기기 위해 한자어와 고어를 활용해 새로운 번역어들을 만들어냈다. 번역의 중심 전략은 “원문의 문체가 담은 많은 의미층을 역문에 가능한 한 풍성하게 첨가”(김종건 2001)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번역의 구체적인 방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ibid.).

1. 다양한 어휘 선택과 조작
2. 한자어 사용: 한자어 응집성과 함축성이 원문의 특성을 잘 드러냄
3. 고전적 표현 사용: 가로되, ~한 바, ~하야, ~같도다 등

위 세 가지 중심전략은 『피네간의 경야』뿐만 아니라 『율리시스』에서도 활

14)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석화신 대 어신은 오스트고트족 대 비지고트 족을, 갑각류 먹는 자들에 대한 언급은 아일랜드 해안에서 이전에 어류를 먹는 자들을 암시하며, gaggin은 독일어 gegen으로 영어의 against라는 말이며, 브렉케크 개골. . . 코역쓰쓰! . . . 아이! . . . 아이고고! 등은 아리스토파네스 희곡 *The Frogs*에서 차용된 것이다. 초기다툼이 벌어지던 늪지는 대홍수 이후의 싸움을 말하고, Ualu! Quáuauh!는 웨일스어의 비탄을 뜻한다. mathmaster math는 앵글로 색슨어의 목베다, 자르다, 산스크리트어의 절멸하다, 힌두어로 오두막, 사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Baddellaries, Malachus, Micranes는 초기 부족 전쟁에 함몰된 켈트 부족과 그 가족들, catapeltling는 catapult투석기 및 pelting연타를 암시하고 camibalistics에서 cam-은 켈트어로 왜곡되고 전도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 속에는 야만적 육식적 행사와 탄도라는 함축이 들어있어 이 문장의 전반적 의미는 ‘혹족들은 그들의 경쟁 때문에 투석기와 원시적 무기들의 수단으로 전도된 식인종적 본능을 창출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Whyteboyce of Hoodie Head에서 white boys백의대는 18세기 아일랜드 토지개혁 등을 주장한 비밀 결사 당원들로 종교적 광신도를 뜻한다(주해, 36-38).

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글과 한자를 해체하고 분리하여 새로 만들어진 번역어들은 창조적인 대신 생소하고 이해가 쉽지 않지만 원전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새로운 우리말 어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원문에 섞여 있는 혼질적인 외국어들을 의미에 중심을 두어 번역한다면, “의미의 포획에만 매몰된 번역”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Berman, 윤성우 외 2011: 46). 베르만은 윤리적 번역¹⁵⁾을 논하면서 번역시 발생하는 왜곡 현상 13가지를 지적했는데(94-96), 그 중 하나가 ‘언어들 간 중첩성의 소멸’이다. 산문, 특히 소설의 경우 방언과 표준어가 존재하거나 여러 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경우,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언어적 중첩성(혼질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베르만은 언어 중첩성을 실험한 대표적 사례로 제임스 조이스의 *Finnegans Wake*를 들었다. 데리다(J. Derrida)도 다언어 텍스트와 번역의 문제에 대해 논하면서 조이스의 *Finnegans Wake*의 한 구절 “And he war”¹⁶⁾에 관해 상술한 후 다언어텍스트의 ‘번역 불가능성’을 선언한 바 있다.

“번역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언어 내부에 기재된 이러한 언어적 차이, 단일 언어 안에 기재된 여러 언어체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만큼은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번역은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지만 . . . 단일 언어 체계 안에 여러 언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만큼은 전달 불가능하다” (Derrida, 1987: 134; 선영아 2015: 297 재인용).

그러나 이런 불가능성의 틈새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애쉬크로프트(Bill Ashcroft)는 “문화 간에 틈과 균열로 인해 오히려 저항과 창조적 변형

15) 베르만이 말하는 ‘윤리적 번역’은 “타자를 타자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번역”이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것이다(ibid.).

16) 한 문장 안에 두 언어가 중첩되어 단일한 의미 질서를 교란하는 문장이다. “war”는 영어와 독일어 사이에 있는 단어로 인식된다. 한국어 본에는 “그리하여 그는 전쟁 하도다”(김종진 2012: 237)로 번역되었다.

이 가능해진다”(2001: 75)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혼종적 텍스트는 등가 번역의 어려움을 보여주지만, 예를 들어 원문의 외국어들이 번역문에 그대로 사용되어 목표 언어에서 수용 된다면 새로운 문화번역이 탄생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피네간의 경야』의 번역어 창안에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에밀리 애프터(Emily Apter 2013; 2005)도 문학의 번역불가능성이 가진 생산적 측면을 강조한다. 애프터는 번역불가능성을 세계문학이 드나드는 “국경초소(checkpoint)”(2013: 107)에 비유하는데, 외국 문학은 국경을 넘을 때 검문 받고, 정체성을 확인당하며, 저항 받고 교섭 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학은 강자 위주의 일방적 상업화를 피하고 주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번역불가능성이야말로 번역문을 원문과 독립된 존재로 자리하게 하고 두 언어 사이의 균열에서 창조의 가능성을 부여하며¹⁷⁾ 이로 인해 번역자는 모국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의 언어 바깥으로 나와 모국어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번역자는 이국의 것을 모국어로 옮기려고 할 때, 특히 원문이 가진 언어적 혼종성을 번역하고자 할 때 모국어가 완벽하다는 믿음, 이국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짐을 깨닫는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어떤 언어도 모든 언어가 공유하는 언어의 본래적 의미, 의도를 단독으로 드러낼 수는 없다고 보았다(1969, 최성만 옮김 2008). 이미 원문 자체가 언어의 의도를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벤야민이 추구하는 번역자의 과제는 원문이 미처 드러내지 못하는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주고 재창조를 통해 해방시키는 것이다. 드러나지 못한 언어의 본래적 의도, 형식, 의미, 즉 “순수언어”(ibdi)를 드러내기 위해서 번역자가 해야 할 일은 의미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되었지만 미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원문의 혼종성을 되살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국적인 것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이기고 “타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꼭 찬 내 집을 좀 비우고 그를 위한 자리와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자”(윤성우 역 2006: 75)고 역설

17) 스피박(Spivak)이나 바바는 번역불가능성에 담긴 저항성과 타자성을 강조하는 반면, 헤럴드 블룸(Herold Bloom)의 ‘차이 구하기(saving difference)’는데 데리다의 ‘차연(differance, 데페랑스)’이 만들어내는 의식의 진공상태를 막고자 한다(Apter 2013: 252).

한 리코르(Paul Ricoeur)의 입장과는 상통한다. 벤야민과 리코르가 제시하는 ‘번역자의 과제’는 의미전달 중심의 자국화 전략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데, 자국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이국화 전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국어라도 익숙하지 않은 표현, 고어, 다층적인 사용역이나 방언 등 다양한 소수적인 표현¹⁸⁾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겠다.

로렌스 베누티(Lorence Venuti)는 혼질적 텍스트의 번역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다. 베누티 번역론의 핵심 개념은 ‘잔여태(remainders)’와 ‘혼질화 번역’이다. 잔여태는 ‘하나의 문화적 언어적 환경 안에서 독특한 개성을 발하며 축적된 표현, 어법, 문장구조, 방언, 신조어, 계급어, 은어, 고어 등의 비주류적인 변수’를 의미한다(1998: 9-10). 그는 이탈리아어를 영어로 옮기는 작업에서 텍스트를 혼질화하고 영어의 패권을 흔들기 위해 잔여태 도입을 시도했다. 베누티는 잔여태에 의해 생성되는 언어적 변이(linguistic variation)는 표준적 의사소통과 언어의 공식화 시도를 좌절시키지만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번역으로 소실되는 부분¹⁹⁾을 잔여태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혼질화 번역이 독자의 이해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수적 요소(잔여태)들이 차이와 다양성을 드러내며 유창성에 저항하지만 잔여태를 중요한 지점에서만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12)이라고 설명한다. 베누티의 혼질화 번역전략은 언어 혼종적 문학 작품의 번역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혼종적 언어들을 그대로 음역하거나 의미역하기 힘들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율리시스』에서 원문의 고어와 사어들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어휘차원의 예스러움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우리말의 오래되고 식상한 표현들을 중간 중간 삽입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도 잔여태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혼종적 텍스트 배경과 관련 담론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번역 현상, 번역의 원칙과 입장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성찰을 시도해 보았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은 언어적 혼종성을 가진 문학작품의 번역에

18) 로렌스 베누티 *Scandals of Translation*(1998)의 “잔여태(remainders)” 및 “소수화전략(minoritizing translation)” 참조

19) 예를 들어 흑인 노예의 말투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의 말투 등.

서는 무엇보다 번역자의 창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원작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우리말 표현에 대한 지식, 여기에 창조적인 고민이 더해질 때 원문의 혼 질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개의 텍스트의 일부만 발췌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번역 현실을 더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번역 전략의 방향성 수립을 위해서는 차후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론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혼종성을 가진 문학 텍스트의 번역에서 번역자의 원문 이해와 창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번역자의 번역관과 번역 전략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김종건 (2015) 『피네간의 경야 이야기』, 서울: 어문학사.
- 김종건 (2012) 『번역 피네간의 경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종건 (2012) 『번역 피네간의 경야 주해』,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종건 (2012) 「피네간의 경야 읽기」, 『제임스조이스 저널』 18(1): 65-79.
- 김종건 (2001) 「피네간의 경야(經夜): 언어(言語)와 번역」, 『제임스조이스저널』 7(2): 1-28.
- 김종건 (1995) 『율리시즈 연구II』,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종성(2006)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파주: 살림출판사.
- 선영아 (2015) 「다언어 글쓰기와 번역의 문제」, 『인문논총』 72(1): 293-324.
- 선영아 (2008) 「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 - 문학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연구』 9(4): 195-219.
- 손석주 & 이명이 (2015) 「인도 영어 소설의 번역 전략: 언어 혼성과 교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57(1): 25-44.
- 윤성우, 이향 옮김 (2006) 『번역론: 번역에 관한 성찰』, 서울: 철학과 현실사. (Ricoeur, Paul *Sur la Traduction*).
- 윤성우, 이향 옮김 (2011)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 서울: 철학과 현실사 (Berman, Antoine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 이상빈 (2014) 「문화번역의 텍스트적 재현과 ‘번역’: 이창래의 *Native Speaker* 와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 119-140.
- (2012) 「문화번역과 젠더번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6(3): 23-42.
- 이석구 (2011) 『제국과 민족국가 사이에서: 탈식민시대 영어권 문학 다시 읽기』, 파주: 한길사.
- 정형철 (2009)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서울: 동인.
- 정혜옥 옮김 (2002) 『번역과 제국: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 서울: 동문선.
(Robinson, Douglas, 1997,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 최성만 옮김 (2008) 「발터 벤야민 사상의 토대: 언어-번역-미메시스」, 『발터 벤야민 선집6: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서울: 도서출판 길. (Benjamin, Walter, 1968, ‘The Task of the Translator’ in *Illuminations*, 69-82).
- Apter, Emily(2013) *Against World Literature: On the Politics of Untranslatability*, Verso books.
- (2006) *The Translation Zone: A New Comparative Literatur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P.
- Ashcroft, Bill (2001) *Post-colonial Transformation*, London: Routledge.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2003)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ndia, Paul (2011) ‘Post-colonial Literature and Translation’ in Gambier, Y., & Van Doorslaer, L.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2).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264-269.
- Bhabha, Homi (1997) ‘Of Mimicry and Man’, *Tensions of Empi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52-60.
-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oehmer, Elleke (2005) *Colonial and Postcolonial Literature: Migrant Metaphors*. Oxford University.

- Brennan, Timothy (1997) *At Home in the World: Cosmopolitanism Now*,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 Delabastita, Dirk (1993) *There's a Double Tongue: An Investigation into the Translation of Shakespeare's Wordplay*. Amsterdam & Atlanta: Rodopi.
- Huggan, Graham.(2001) *The Postcolonial Exotic*, New York: Routledge.
- Longhurst, B., Bagnall, G., Smith, G., & Baldwin, E. (2008)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Pearson Education.
- McLeod, John (2000) *Beginning Postcolonialism*. Manchester University.
- Simon, Sherry (2011) 'Hybridity and Translation' in Gambier, Y., & Van Doorslaer, L.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2).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49-53.
- Snell-Hornby, Mary (2000) 'Communicating in the Global Village: On Language, Translation and Cultural Identity', in *Translation in the Global Village*, ed. Schäffner, Christina,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Taylor & Francis US.
- Viswanathan, Gauri (1987) 'The Beginnings of English Literary Study in British India', *Oxford Literary Review* 9(1): 2-26.
- Walkowitz, Rebecca L. (2006) *Cosmopolitan Style: Modernism Beyond the N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Wang Ning (2004) *Globalization and Cultural Translation*,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 wa Thiong'o, Ngugi(1994) *Decoloniz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Easter African Publishers.
- Ogbaa, Kalu (1999) *Understanding Things Fall Apart: A Student Casebook to Issues, Sources, and Historical Documents*.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 Satanic Verse Paul Brians 주해:
https://public.wsu.edu/~brians/anglophone/satanic_verses/svnotes.pdf

[Abstract]

Translating Linguistic Hybridity in Postcolonial Fictions

Kim, Gi 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plausible strategic options in translating linguistic hybridity of ‘postcolonial literature’ by examining their literary features, translation theories, and Korean translations of typical postcolonial texts. Using hybrid and subversive languages, many postcolonial writers try to destroy illusions about “universality” held by imperial languages, such as British English. Those features, however, create tremendous difficulties in translating, as the effects generated by multilayered linguistic texture is hard to survive translations. Linguistic hybridity of postcolonial literary texts is often realized through inserting untranslated indigenous words, using foreign words, coining new words and misspellings, all intended to violate norms of standard English. Korean translations reviewed in this paper normally depend on transliteration(sound borrowings) and translator annotations, and often failed in conveying multiple textuality of the original. Viable strategies and creative interventions by translators should be discussed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 from accumulated data. This paper confirmed the critical need for accumulating case study data on translating multilingual texts.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postcolonialism, postcolonial literature, hybridity, translators’ creativity, cultural translation

김기영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대우강사

trangie@pusan.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번역과 이데올로기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